

윤석열 대통령 확실... 피말리는 밤샘 개표 드라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대 등 당 지도부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권영세 선대본부장 등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제20대 대선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박수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대 卍 대선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그야말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 국민 통합이 최대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 양강 후보 진영을 중심으로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전이 치열했지만 이를 뒤로 하고 미래를 위한 국민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2·3·4·6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10분부터 시작된 개표는 10일 새벽 01시 현재 개표가 62.59% 진행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8.52%의 득표율로 48.00%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11만1,435표 차이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이에 앞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20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

윤석열 후보 10일 새벽 2시 현재 근소한 차이 앞서 코로나19 대확산·민생경제 등 풀어야할 과제 산적 선거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위한 국민 역량 모아야

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47.8%, 48.4%로 나타났다. 또 다른 출구조사를 진행한 JTBC 조사에선 이 후보가 48.4%, 윤 후보가 47.7%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의 예상 득표율이 불과 0.6%포인트 ~0.7%포인트 차이로 나타나면서 대선 최종 결과는 마지막까지 초박빙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시간, 광주의 개표율은 71.76%로 이재명 후보가 85.30%(70만7,227표), 윤석열 후보가 12.30%(8만6,403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남은 82.34%의 개표율에 이재명 후보 86.76%(90만8,215표)의 득표율을, 윤석열 후보가 10.85%(11만3,649표)의 득표율을 나타냈다.

개표 결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다면 대선 막판 이뤄진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역풍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될 전망이다. 급작스런 단일화에 대한 진보 진영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호남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대거 결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남은 사전투표에서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 수도권 등

에서 '이재명 바람'을 불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다면 민심 저변에 정권교체의 흐름이 그만큼 강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촛불 정권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민심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것이다. 또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으로 이 후보가 당선될만큼 민심의 신뢰를 받는데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대선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표 결과, 0.5~1% 포인트 이하의 득표율 차이로 승패가 갈린다면 이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 최악의 대선이라는 평가를 받은 정도로 양강 후보 진영의 네거티브 공방전이 치열했고 진영 대결은 물론 세대, 성별 등의 갈등도 첨예했다는 점에서 초접전 대선 결과가 나온다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승리한 진영은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패배한 진영은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대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호가 직면하고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 19 대확산에 금리 및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국제 정세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후폭풍으로 불안한 상황이며 유가 폭등 등 전세계적 에너지 위기로 번지고 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 평화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결과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면 새로운 정부를 중심으로 불확실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의 흐름으로는 역대 대선 최고의 접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이라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깨끗이 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2022 대선

지역별 투표율(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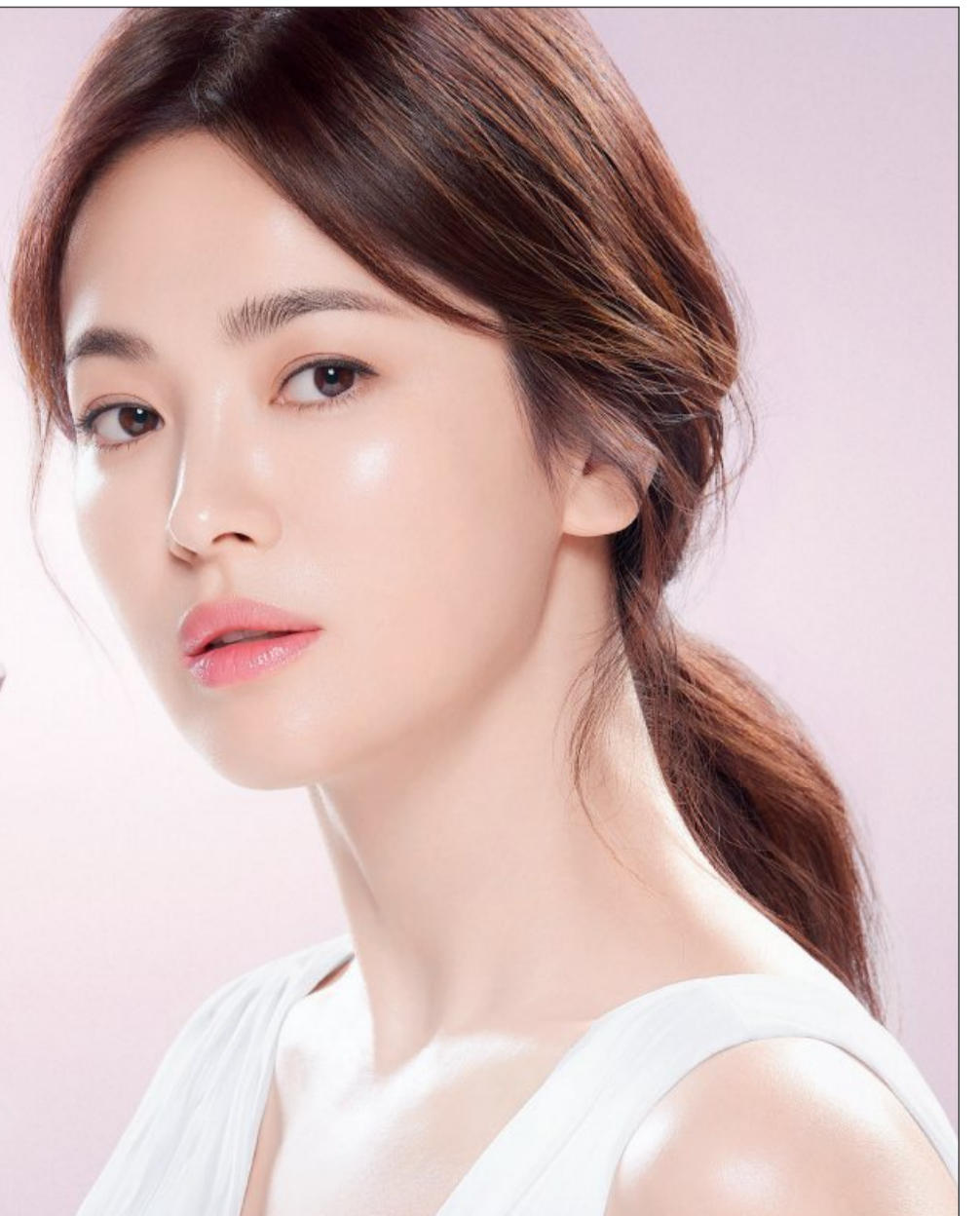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암뉴스

개표 지연으로 일부 지역 배달 차질 사과 드립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